전통과 자비의 빛, 부산 수놓는다

부처님오신날 맞아 5월 1~17일
송상현광장 · 부산시민공원 일원
부산무형유산 등재 염원 담아 봉행
전통등 보존 및 전승 가치 재조명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2570부산연등회'가 오는 5월 화려한 막을 올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주최하는 부산연등회는 전통등(燈) 문화의 전승·보존과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부산무형유산 등재로 회향하기 위한 뜻깊은 장으로 마련된다. 행사는 크게 '부산연등문화제', 본 행사인 '부산연등회(연등행렬)',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나눠 풍성하게 진행된다.

17일간의 '빛의 향연' 무명을 밝히다

부산시민과 관람객들이 불교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인 '부산연등문화제'는 5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송상현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점등식'은 5월 1일 오후 7시에 거행된다. 이날 점등식에서는 어둠을 밝히는 대형 전통등 점등과 함께, 부산연등회만의 고유한 전통인 '호기놀이'와 간이 연등행렬이 재현돼 무형유산으로서의 독창성과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 송상현광장을 장엄할 '전통등 전시'도 주요 볼거리다.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원등 달기 체험'이 상시 운영된다. 꼬리표에 각자의 소망을 담아 등을 밝히는 이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돼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불사로 회향된다.

부산 시내 수놓을 장엄한 연등행렬

봉축 행사의 백미인 '부산연등회(연등행렬)'는 5월 16일에 봉행된다. 이날 봉축연합대회가 열린 직후, 수만 개의 연등이 빚어내는 장엄한 '연등행렬'이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올해 연등행렬은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을 출발해 하마정교차로와 양정교차로를 거쳐 종착지인 송상현광장까지 이어지는 약 2.2km 구간에서 진행된다.

무차만발공양과 느티떡 전승 등

주말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송상현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5월 9일과 10일에 열리는 '전통문화체험한마당'에서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불교 및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다. 특히 5월 10일에는 송상현광장을 찾은 관람객 3000명에게 비빔밥을 무료로 나누는 '무차만발공양'이 진행된다.

잊혀지는 고유의 세시풍속을 되살리기 위한 전승 활동도 주목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느티나무 새순을 따서 떡을 빚어 부처님께 공양 올리던 전통을 되살린 '느티떡 전승회'가 열린다. 이와 더불어 '전통등·지화 만들기 강습회'를 통해 우리 고유의 수공예 전통 제작 기법을 대중에게 전수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축제의 열기를 더할 '관람객 SNS 공모전'도 눈길을 끈다. 2570부산연등회 관련 행사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인 SNS에 업로드한 뒤,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를 지정된 번호(010-5920-0501)로 전송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수상작은 오는 6월 중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대상(1명) 태블릿 PC, 최우수상(1명) 에스프레소 머신, 우수상(1명) 고급 헤드폰, 참여상(20명)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푸짐한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비 실천 힘찬 발걸음" 삼광사 자원봉사단 발족

4월 11일 삼광사 약사전서 발대식
봉사자 70명, 주 1회 도시락 배달
어르신 안부 확인 및 유대감 형성



부산 삼광사는 4월 11일 약사전에서 '삼광사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할 자원봉사단을 출범했다.

삼광사는 4월 11일 약사전에서 '삼광사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불교의 핵심 덕목인 보시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눔 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발대식은 자원봉사자 70여 명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법어 봉독, 위촉장 수여, 주지 스님 인사말, 축사, 발원문 낭독, 관음정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삼광사는 발대식을 계기로 '마음 든든 온기 나눔 도시락' 봉사활동을 본격 전개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주 1회 사찰음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이웃의 삶을 살피는 수행의 장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주지 용암 스님은 "자원봉사단 출발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혜와 복덕은 불자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덕목으로, 따뜻한 말과 손길에서 실천이 시작된다"며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자비행으로 희망을 전하는 길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광사는 지난 2015년 8월 비영리법인 (사)나눔광장을 설립해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 의료·법률 서비스,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 어르신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락 봉사는 그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활동을 재정비하며 추진된 핵심 사업이다. 봉사 대상자는 부산시 17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봉사단은 독거 어르신 37명을 대상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나눔광장과 연계해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봉사 실적 인증과 우수 봉사자 포상 제도 등 지속 가능한 참여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성파 대종사 "우주 전체가 불교미술…연구 지평 넓히길"

불교미술사학회 춘계학술대회
4월 11일 통도사 문수법당서
'석가모니불' 연구 성과 공유


불교미술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성파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불교미술사학회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석가모니불을 다층적으로 조명한 7편의 학제적 연구 성과를 대중과 공유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학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달라"고 당부했다.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진응 스님·통도사성보박물관장)는 4월 11일 통도사 설법전 문수법당에서 '석가모니불 연구의 성과와 새로운 시선'을 주제로 제46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불교미술, 문헌학, 고고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동아시아 불교문화 속 형상화 양상을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석가모니불을 조명한 7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먼저 김용준(고려대)은 '갠지스대평원 고고학: 석가모니 시대와 8대 성지'를 주제로 석가모니의 출생지가 당시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에서 비켜나 있었던 전통적 사회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연구들이 도시와 불교의 관계에만 집중해 수평적 사회나 숲의 전통이 초기 불교에 미친 영향을 간과해 왔다"며 대도시 중심의 성과에만 의존하지 않는 비도시적 고고학 전통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빨리어본 자따까(Jātaka)에 나타나는 보디삿따(bodhisatta)의 정체성(최선혜, 동국대) △유물과 명문으로 살펴본 요제국의 석가모니불 인식(김연미, 이화여대) △중국 하북성 봉산사(峰山寺)의 불전벽화 연구(정하담, 원광대) △조선 후기 석가여래좌상의 정형화와 그 배경(조태건,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등이 발표됐다.

이날 성파 스님은 "〈화엄경〉에서 설명하는 우주 전체의 '화장찰해(華藏刹海)' 자체가 곧 불교미술이며, 대자연의 장엄한 세계가 바로 훌륭한 그림"이라며 "불교미술을 단순히 좁은 울타리 안에만 가두지 말고, 대자연을 불교적 안목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 부산, '제18회 명상걷기대회' 개최

4월 25일, 어린이대공원 일대서
휠체어 전달식 · 장기기증 캠페인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시민이 함께 걷는 화합과 치유의 장이 마련된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가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 및 수변공원 일대에서 '희망세상 만들기 제18회 생명나눔 명상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명상걷기대회는 부산시민들에게 장기기증의 참된 의미와 동참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존중을 통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생명초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천연 페이스페인팅, 무료건강 상담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행사장에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생명나눔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후 2시 거행되는 개막식은 본부장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휠체어 전달식이 진행돼 행사의 훈훈함을 더한다. 이어 생명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불무도 명상 시연과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준비체조가 진행된 후,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와 수변공원 일대를 걷는 명상걷기가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대회는 부산시민과 생명나눔실천 본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접수자에 한해 선착순 400명에게는 소정의 혜택이 제공된다. 접수 및 문의는 전화나 문자로 가능하다. 051-853-042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일념장학회, 글로벌 인재 불사 '도약'

지역 학생 11명에 장학금
인도 국제승가대학도 후원



재단법인 일념장학회(이사장 이경순)가 1971년부터 이어온 불교 인재 양성의 원력을 바탕으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장학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념장학회는 4월 14일 부산 묘광선원에서 '2026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하고 지역 대학생과 중학생 총 11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장학회는 지난 2월 인도 분황사 국제승가대학을 방문해 해외 학인들에게도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글로벌 인재 불사로 그 영역을 넓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 인도 분황사 국제학교 학장 붓다빨라 스님, 부산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범어사 사회국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학생들의 앞날을 축원했다. 특히 안도 스님과 김윤환 회장 등이 장학 기금 모연에 동참하며 인재 불사에 힘을 보탰다.

혜총 스님은 격려사에서 "한국과 인도의 스님들이 뜻을 모아 국제승가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한국불교를 세계로 확산하는 매우 뜻깊은 불사였다"며 학생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 5월 7일 개막

5월 7~10일 쌍계사 일원서
다맥전수 · 다도 시연 등 다채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2026년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을 개최한다.

쌍계사는 신라 선종의 중심 도량이자 차문화의 성지로, 매년 봄 차문화의 역사성과 수행 정신을 대중과 함께 나누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차문화 대축전을 열고 있다.

행사는 5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진행된다. 8일에는 다도 시연과 함께 진감 선사 추모 다례재가 봉행되며, 고산 대선사 다맥전수식이 열려 한국 차맥의 전통 계승 의미를 더한다. 9일에는 '차(茶)·디카시를 만나다'를 주제로 문화 프로그램과 축하 행사, 시상식,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10일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K-어울림 콘서트'가 열려 세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쌍계사는 "차는 수행과 일상을 잇는 중요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차문화 대축전이 전통 차문화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누구나 향유하는 열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055-883-1901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무량암 주지에 창윤 스님 취임

4월 11일 무량사 주지 진산식
"수행 정진으로 정법 이을 것"



남해 무량암 주지 창윤 스님이 "누구나 편히 찾아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수행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4월 11일 무량암에서 열린 주지 진산식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무량암 회주 범신 스님, 주지 창윤 스님, 남해불교사암연합회장 승원 스님, 광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창윤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량을 일궈 온 회주 범신 스님과 문중 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도량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수행과 정진을 바탕으로 전통을 잇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부지런히 불법을 공부하고 바르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사찰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 도량"이라며 "정진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불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종정협 초대 대승주에 월인 대종사

4월 13일 양산 불광사서 추대식
15대 회장 청봉 스님 취임법회도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초대 대승주에 화산 월인 대종사가 추대됐다. 제15대 회장에는 정산 청봉 대종사가 취임했다. 종정협의회는 4월 13일 양산 불광사 대법당에서 '초대 대승주 화산 월인 대종사 추대식 및 제15대 회장 정산 청봉 대종사 취임대법회'를 봉행했다.

초대 대승주에 추대된 월인 스님(대한불교승가종)은 법어를 통해 "창립 후 30년 동안 대덕 스님들의 원력으로 협의회가 이어져 왔다. 그 공덕과 법맥을 깊이 새기고 계승해야 한다"며 "협의회는 앞으로 한국불교를 넘어 세계 불교사에 길이 남는 단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설했다.

15대 회장에 취임한 청봉 스님(대원불교조계종)은 취임사를 통해 협의회의 전통 계승과 실천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협의회의 창립 정신을 계승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 땅에 불국토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